11년 경력, 변호사님들이 함께하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39-8119 제 3143호

성도 위로는 어떻게? AI 사용 기준은?… 2027년 목회에 대해

예장 고신, 목회계획 세미나 열고 총회 주제인 '위로' 및 'AI' 조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3일 서울 남서울교회에서 '위로'라는 주제로 제76회기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회장 신진수 목사가 설교한 개회예배에 이어 고신총회 제76회기 주제인 '위로'에 대한 해설, '위로'와 관련된 목회 프로그램 해설,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선택 강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된 위로는 참된 회개에서"

먼저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가 '제76회 고신총회와 위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고신 교단이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교단이라면 고신은 위로의 교단"이라며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참된 평안은 회개에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했다.

하 교수는 "고려신학교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옥고를 '자랑거리'나 '타인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통회자복의 자세를 가졌다"며 "비판과 정죄에 맞대응하지 않았던 겸손의 사료, 그리고 타 신학자들을 넓게 포용해 신학교를 시작했던 개방적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학자인 알렉스 토런스(Alex Torrance) 박사의 '고대 후기의 회개'(Repentance in Late Antiquity)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회개가 있다"며 "우선 첫째는 '초기 회개'(initial repentance)로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회개이다. 둘째는 '실존적 회개'(existential repentance)로서,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 전체를 회개의 행로라 여기며 복음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유일한 목표로서의 회개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Christ-like repentance)로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까지 대신했던 회개"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지금도 여전히 맘몬에 굴복하는 치욕의 역사를 나의 죄, 우리 고신의 죄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참된 위로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다른 사람도 위로"

이어 제인호 목사(고신총회 사무총장)가 2027년 목회계획을 제시했다. 고신총회의 2027년 목회 주제는 '위로'이며 표어는 '위로받는 성도, 위로하는 성도', 주제 성구는 '위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린도후서 1장 3~4절이다.

제 목사는 목회중점 사항을 설명하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감이 팽배해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교회도 그런 시대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이 행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은혜로워야 하는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갈등을 경험하거나 경직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시대 상황이기에 '위로'라는 주제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로를 위로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는 것도 그런 책임 중 하나다. 하나님이 주신 내년 한 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위로해야 할 대상이 가정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열방 역시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위로의 지경이 그분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예장 고신총회 목회계획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하재성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하재성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제인호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AI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해야"

이 밖에 이기룡 원장(총회교육원)이 '다음세대를 향한 위로 프로그램', 김정원 목사(언양교회)가 '교회의 위로', 이채희 목사(더원교회)가 "연약하지만 존귀한 교회를 향한 위로' 후속 프로그램", 강현석 목사(서울서문교회)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언약 공동체의 가정 돌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태형 선교사(위드미션 IT선교연구소장)가 'AI 활용에 관한 목회 윤리적 가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선교사는 AI를 목회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들었다. 그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면, 자료 조사나 PPT와 포스터 제작 같은 일은 AI에게 맡길 수 있다"며 "그러나 본문 묵상과 핵심 메시지 파악, 교회 방향 설정, 성도 돌봄 등 본질적인 일은 목회자 자신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선교사는 "AI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고, AI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AI가 우리를 따라오도록 사용하는 것이 주체성을 가진 AI 사용"이라며 "AI는 정답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답을 준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목회자가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목회자의 AI 활용에 대해 발표한 이정현 목사(남울산장로교회)는 "AI는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성경 해석, 인용 자료, 역사적 사실, 행정·법률·재정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회의록에는 실제 논의와 결정 사항을 구분하고, 기록에 없는 결의나 담당자, 기한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는 목회자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도구"라며 "목회의 방향과 판단, 최종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예배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총회장 신진수 목사는 "목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사랑이다. 사역의 현장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정말 많다. 2027년은 이러한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기성 이어 예성도 작은 교회 지원… '함께세움' 추진

10개 교회 대상 환경 개선 지원… 현장 실사로 필요한 보수 작업 파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기용 목사·기성)에 이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종만 목사·예성)도 작은 교회 재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예성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 10곳을 지원하는 '함께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성이 진행한 작은 교회 지원 사업을 계기로 자체 모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성은 교단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120교회 리모델링 및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예성 소속 교회 3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성은 이 같은 지원에 이어 자체적으로 교회 10곳을 돕는 사업을 마련했다.

함께세움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과 함께 교회별 필요에 맞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공과 도배, 음향 등 전문 기술을 갖춘 봉사 인력이 교회를 방문해 보수 작업을 돕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실사 위원들이 신청 교회를 방문해 시설 상태와 시급한 보수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순달 예성 총무는 이번 사업이 한국교회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자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성 총회 작은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에 임하던 모습. ©예성

노형구 기자

법원, 하남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건물 철거·토지 인도 명령

1심서 LH의 약 63억 원 지급과 동시이행 판결… 교회 측 반소 각하

불법 전매 논란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법원이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측에 건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LH의 토지대금 상당액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대산)는 지난달 27일 LH가 하나님의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측이 LH로부터 63억 1,945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하남시 감이동 종교용지 2,111㎡에 건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도록 명령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제기한 반소는 각하했으며, LH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의 경우 양측이 각자 부담하고, 반소 비용은 하나님의교회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2020년 감일지구 종교5부지가 사찰 측에서 하나님의교회 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전매가 제한된 공공택지 종교용지 거래에 약 20억 원의 웃돈이 붙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측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2025년 12월 8일 수원지법 형사7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하나님의교회 소속 관계자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 적용된 법률에 매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중개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2024년 7월 LH가 신청한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토지 인도 본안 소송에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명령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노형구 기자

JESUS LOVE
마음을 전하는 단체 선물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 · 선물세트 · 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QR로 바로 주문
UV 장우산
세라믹 텀블러
고급 볼펜
말씀 머그컵